

높게 일정한 전단공원 - 유화동 - 국자 - 유화동공원을 돌아볼 계획이다.
 숙소앞에서 다행이 원단공원으로 가는 버스 7가 있어 곧 바로 버스를 타고 원단공원 남쪽에 내려 공원을 향했다. 입구에서부터 시민들이 역가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다.
 태극권, 제기, 키타산 찻을 들고 바닥에 서예를 하는 사람,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사람 등 다른 공원에서와 큰별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이다.

